

골키퍼 막고 막고 또 막고... 첫 관문 '무패'로 넘었다

'어제인 2019' U-20 월드컵
감비아와 0-0... 1승2무 조 2위
16강전 상대는 에콰도르

김은중호가 '어제인 2019'를 향한 첫 번째 관문인 조별리그를 '무패'로 넘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은 29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열린 감비아와 대회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0-0 무승부를 거뒀다.

2차전 결과로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된 한국은 3차전에서 비기면서 1승 2무(승점 5)의 '무패 행진'으로 조별리그를 마감, 감비아(2승 1무·승점 7)에 이어 F조 2위를 확정했다.

김은중호는 한국시간으로 6월 2일 오전 6시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B조 2위 에콰도르(2승 1패·골 득실 +9)와 16강전을 펼친다.

전날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 김은중 감독은 감비아를 상대로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고려해 대규모 로테이션을 실시했다.

김 감독은 26일 온두라스와 2차전에 나섰던 선수 중 이영준(김천), 이승원(강원), 강성진(서울), 김지수(성남)만 남기고 7명의 선발 명단을 바꿨다.

여기에 수비수 최석현(단국대)이 온두라스전에서 옐로카드 2개로 퇴장당하고, 골키퍼 김준홍(김천)도 프랑스전과 온두라스전에서 각각 옐로카드 하나씩 받아 '경고 누적'으로 감비아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온두라스전 득점에 성공했던 박승호(인천)는 발목 골절 부상으로 이번 대회를 아예 접어야 했다.

한국은 감비아를 맞아 이영준을 최전방에 놓고 2선 자리에 이지한(프라이부르크), 이승원, 강성진을 세운 4-2-3-1 전술을 들고나왔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박현빈(인천)과 이찬욱(경남)이 맡고, 최예훈(부산)-황인택(이랜드)-김지수-조영광(서울)이 포백을 구성했다. 문현호(충남 아산)는 골키퍼 장갑을 꼈다.

김은중호는 전반 초반부터 무리하지 않고 탐색전을 펼쳤다.

한국은 전반 11분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불을 이어받은 강성진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을 시도한 게 수비수 맞아 골대를 향하지 못했다. 이날 한국의 첫 슈팅이었다.

감비아의 공세도 목격했다. 전반 21분 아마다 보장의 헤더가 크로스바를 넘고, 전반 27분 발리오바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시도한 기습적인 슈팅도 골키퍼 문현호의 가슴에 안겼다.

한국은 강성진의 오른쪽 측면 돌파로 공격의 실마리를 풀려고 했지만, 감비아의 탄탄한 수비벽을 허물지 못하며 전반을 득점 없이 끝냈다. 한국은 전반 동안 유효슈팅을 시도하지 못했다.



29일 아르헨티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조별리그 F조 3차전 한국과 감비아의 후반전 경기에서 골키퍼 문현호가 상대 선수의 슈트를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후반전 시작과 함께 감비아는 공격진을 끌어올리며 공세적으로 나섰다.

한국은 후반 2분 만에 골 지역 정면에서 감비아의 보장이 시도한 헤더를 골키퍼 문현호가 몸을 날리며 쳐내는 슈퍼세이버로 실점을 막아냈다.

골키퍼 문현호는 후반 5분에도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파고든 만수르 음바에의 강력한 왼발 슈팅을 막아내며 위기를 넘겼다.

반격에 나선 한국은 후반 12분 강성진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강한 왼발 슈팅을 시도한 게 골키퍼 정면 쪽을 향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은중 감독은 후반 12분 벤치에서 대기하던 김용학(포르티모넨스)과 배준호(대전)를 투입하며 전방을 강화했다.

한국은 또다시 문현호의 슈퍼세이버로 실점 위기를 넘겼다. 후반 22분 감비아 살리푸 풀레이의 강한 왼발 슈팅을 역동작에 걸린 문현호가 힘겹게 손으로 쳐냈고, 불은 골대를 맞고 나왔다. /연합뉴스

조별리그 3경기서 11골로 최다 득점... 피지전에 9골 4년 전 준결승서 맞붙어... 16강 중 가장 해볼 만한 팀

에콰도르는 어떤 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출전한 김은중호가 B조에서 2위를 차지한 에콰도르와 16강 외나무다리에서 맞붙게 됐다.

에콰도르는 이번 대회 본선에 나선 24팀 중 가장 득점이 많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10골 이상 기록한 나라가 총 3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인데, 그 중 에콰도르가 가장 많은 득점(11골)을 올렸다. 특히 피지와 B조 3차전에서만 9골을 퍼부었다.

B조 1위 미국과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0-1로 진 에콰도르는 슬로바키아전(2-1 승)에 이어 피

지전 대승으로 조 2위로 16강 진출권을 따냈다. 에콰도르로서는 한국에 4년 전의 복수를 이룰 기회일 터다.

4년 전인 2019년 폴란드 U-20 월드컵 4강전에서 정정호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은 에콰도르를 1-0으로 꺾고 대회 사상 첫 결승 진출의 역사를 일궈냈다.

당시 전반 39분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이강인(마요르카)의 절묘한 침투 패스를 받은 최준(부산)이 결승 골을 터뜨려 에콰도르를 무너뜨렸다.

이번 에콰도르 대표팀에서 주목받는 신예는 '2007년생 유망주' 캔디 파에스(인테펜디엔테

델 바에)다.

16세인 파에스는 피지와 경기 시작 7분 만에 수비 뒷공간을 공략,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손쉽게 침투한 후 침착한 오른발 마무리로 골 맛을 봤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되는 파에스를 둘러싸고 벌써 '빅 클럽'으로 이적설까지 불거진 상태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파에스가 득점하자 트위터를 통해 "첼시는 총액 2천만유로(약 285억원)에 (파에스와) 계약을 체결해 기뻐하고 있다. 2025년에 첼시에 합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래도 에콰도르는 김은중호가 만날 수 있었던 16강 상대 가운데서는 가장 해볼 만한 팀으로 평가된다.

에콰도르와 16강전은 다음 달 2일 오전 6시 산티아고델에스테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연합뉴스

신유빈-전지희 탁구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한국대표팀 은 2·동 1 수확

신유빈(대한항공)-전지희(미래에셋증권) 조(12위)가 '만리장성'을 두 번 넘지는 못하고 2023 국제탁구연맹(ITTF) 개인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27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대회 8일째 여자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왕이다-천명 조(7위)에 0-3(8-11 7-11 10-12)으로 졌다.

준결승에서 세계 1위 쑨잉사-왕만위 조를 꺾는 이변을 일으키고 1987년 뉴델리 대회 양영자-현정화 조(우승) 이후 36년 만에 여자복식 결승에 올라 기대감을 끌어올린 신유빈-전지희 조는 아깝게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여자 개인전 단·복식 전체를 놓고 보면 한국 선수가 은메달 이상의 성적을 낸 것은 1993년 예테보리 대회 현정화(우승) 이후 30년 만이다.

한국 대표팀은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앞서 남자복식에서 장우진(미래에셋증권)-임종훈(한국거래소) 조가 은메달을, 조대성-임상수(이상 삼성생명) 조가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 탁구가 개인전 세계선수권에서 메달 3개 이상을 따낸 것은 남자단식에서 은메달, 남녀복식에서 동메달 1개씩을 수확한 2003년 파리 대회 이후 20년 만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2023 국제탁구연맹(ITTF) 개인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복식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신유빈(대한항공·왼쪽)-전지희(미래에셋증권). /연합뉴스

1게임을 내준 신유빈-전지희 조는 2게임에서 과감하게 공격하며 6-3까지 앞서나갔다.

그러나 상대의 예리한 커트에 당하며 역전을 허용, 게임스코어 0-2로 물렸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3게임에서는 상대 샷이 에

지에 맞는 등 불운 속에서도 듀스 승부를 펼쳤으나 결국 챔피언십 포인트를 내주고 말았다.

경기 뒤 시상식에서 전지희와 신유빈은 밝은 표정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은메달 시상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했다. /연합뉴스

광주 김체량·전남 신수용 역도 3관왕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전남 선수단 다관왕 배출

광주체육 최지용 근대3종 2관왕 월봉중 박태영 에어로빅 2관왕 영암초 문승유 수영 평영 2관왕

광주·전남 선수단이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다관왕을 잇따라 배출했다.

광주 선수단 김체량(광주체육 3년)은 지난 2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여U16 역도 + 81kg급에서 인상, 용상, 합계 3관왕에 오르며 광주 선수단 첫 3관왕에 등극했다.

남U16 근대3종에 출전한 최지용(광주체육 3년)은 개인·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2관왕을 차지했다.

최지용의 금메달은 근대3종이 소년체전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처음이다.

에어로빅에서도 2관왕이 나왔다. 박태영(광주 에어로빅합합 댄스전문스포츠클럽·월봉중 3년)이 개인전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김도연·손담비·이태민·임수빈과 팀을 이룬 중학부 5인조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검도 남U13에 출전한 광주선발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바둑 여U13 광주선발(안예습·정재원·조가은)도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하며 광주선수단 선전에 힘을 보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체량

태양(완도중 2년)도 인상과 합계에서 금메달을 들어올리며 2관왕을 차지했다.

수영 여U11 문승유(영암초 4년)는 평영 50m, 100m에서 '금 물살'을 가르며 2관왕에, 육상 여U16 최지우(구례여중 2년)는 400m와 정해진·정지민·김모아와 팀을 이룬 1,600m 계주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통과하며 2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최지우는 400m 2연패도 달성했다.

바둑에서는 남녀 동반 금메달을 수확했다. 남U16 서지산·임지호·최경서(한국바둑중)와 여U16 악지우·임지우·최지윤(한국바둑중)이 단체전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연합뉴스